

야성 지닌 강한 정보기관 더욱 필요한 시대



한반도 테라포밍

박진기
세종대학교 교수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

국가를 수호한다는 것은 외형적인 영토 보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아주 고귀한 일이다. 그러하기에 그만큼 힘이 드는 일이며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투철한 사명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적국이 침범한 전쟁 상황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매우 중요한 일하기에 그 행위를 '소리 없는 전쟁 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말한다. 정보작전의 성패는 실질적 국가의 안위는 물론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이번 이스라엘 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Mossad-정보특수작전국)'의 능력은 세계 최고임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이스라엘은 모사드 이외에도 국내 정보기관인 '신벳(Shin Bet)', 군사 정보기관인 '아만(Aman)' 그리고 2017년 총리실 산하 국가사이버국(INCB)과 국가사이버보안국(NCSA)을 통합하여 만든 '국가사이버안보부(INCD)'를 가지고 있다.

해의 공작의 대명사인 모사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1948년에 건국된 이스라엘이 이듬해 12월 외무부 산하에 설립한 '정치국'을 모태로 하고 있다. 이스라엘답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돌팔매로 이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적은 잠언 11장 14절을 인용하여 '지략이 없으면 망하고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를 원훈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고라는 이스라엘의 대공방어 미사일시스템 명칭이 '다윗의 돌팔매'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주는 상징성도 크다.

모사드의 정원은 대략 15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요 부서는 첩보 수집과 기술 공작과 정치활동 및 대외 연락과 분석과 등이며 70명 내외로 추정되는 암살 전문팀 '키돈(kidon)'을 보유하고 있다. 키돈은 암살을 주제로 하는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활용된다. 물론 시련이 있었다. 어느 국가들처럼 정권을 차지한 정치인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된 시기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다시금 제자리를 찾았으며 이번엔 보여 준 '헤즈볼라 수뇌부 제거' 및 '3000곳 동시 삐삐 폭발 공작'처럼 정보작전 역사에 기록될 만큼 경이로운 성과를 도출했다. 이보다 앞선 1월31일 이란 내부의 스파이를 이용, 5만 페이지 분

량의 자료 등 500kg에 달하는 이란 비밀 자료를 빼 오기도 했으며, 이와 연계해 이스라엘 스파이를 색출하기 위해 만든 이란의 '모사드 색출 부대' 책임자와 요원 20여 명도 이스라엘의 첩자였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이스라엘은 모사드의 능력을 토대로 미국조차 통제할 수 없는 강인함을 가지고 아랍 국가들로 둘러싸인 중동에서 압도적 작전 능력을 보여 주고 있다. 이란이 헤즈볼라를 지원하기 위해 미사일 200여기를 발사하자 철통 대공방어 시스템으로 무력화시켰다. 솔로몬의 글을 원훈으로 쓰는 정보기관의 정보력과 '다윗의 돌팔매'라 불리는 대공방어 시스템에 의해서 말이다. 정보기관이 하는 일은 그런 것이다. 검은

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원훈이 창설 당시로 회귀했다고 현재 국정원 직원들이 모사드와 같은 정보활동이나 특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까. 지난 수십년간 내세운 만한 특수작전이나 공작 사례도 없었을 뿐더러 3차례-15년간의 좌파 정부를 거치면서 '요원이 아닌 직원화'된 공무원들을 갑자기 목숨을 건 정보작전에 내몰면 과연 그 일을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

정보기관에 근무한다고 위세를 떨던 시대도 끝났다. 북한은 물론 이를 지원하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세계 각국들과의 정보 전쟁에서 오직 실력만으로 정보기관의 명성을 만들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미 국내 정보방첩 기능은 제각기 떨어져 정보기관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상태이고 실질적



국가정보원의 원훈(院訓)은 그동안 정치인들에게 휘둘리고 난도질당하면서 들고 돌아 다시 창설 당시의 '우리는 암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되돌아왔다. 연합뉴스

정보기관 역할 중시되는 시대에 우리도 각성해야 권력형 기관 아닌 실력 갖춘 진정한 정보기관 필요 실질적 공작·작전 능력 갖춘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선글라스와 검은 양복으로 대변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전사가 아닌 평시에도 철저한 비밀 속에서 일반적 군사작전 차원의 비정규적 수준을 넘어선 '아주 은밀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요원들은 전쟁법이나 제네바협정의 대상도 아니며 작전 중 체포되면 국가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재판 없이도 사형을 당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오직 국가를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진 요원들이 필요하다.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원훈(院訓)은 그동안 정치인들에게 휘둘리고 난도질당하면서 들고 돌아 다시 창설 당시의 '우리는 암에서 일

해의 공작이나 특수작전 역량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보도에 따르면 9월 말 네팔에서 공작관 경호요원(707특임단 부사관 출신) 2명이 산사태로 순직했다고 한다. 경호요원이 필요한 위험성 높은 작전일 수도 있다. 우수한 재원의 순직은 안타까운 일이나 그것이 올바른 정보기관의 모습을 찾아 가고 있다는 방증일까. 기존의 지연·학력 위주의 공채가 아닌 자기희생적 국가관과 실질적 작전 역량과 '경력'을 갖춘 요원들이 즐비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기를 바란다.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말이다.

社說

'의대 5년제' 방안은 성급한 편법 아닌가

정부가 최근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발표하자 의료계에서 거센 비판과 반발이 나오면서 의대 증원 정책으로 빚어진 사태는 오히려 점점 더 꼬이는 모양새다. 정부가 의료계 인력 양성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내놓은 방안이 상식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커져 버린 의대 문제를 표면적으로만 봉합하려는 성급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항의해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고 이로 인한 신규 의사 배출에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자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고 교육 과정 단축·탄력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내용 중 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대해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교육부가 이 같은 무리수를 둔 것은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복귀했을 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력 양성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한 교육지책으로 보인다. 오석환 교육

의사 공급 부족 '의료 질 저하'로 매우려나 일부 선진국 의대 교육과정 8년 운영하기도 임기응변식 땀집 처방 전에 먼저 공론화를

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내년뿐만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학사 운영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장 내년에 의사 배출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임기응변식 처방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2월 전국 40개 의대를 다니던 학생 다수가 '휴학'을 신청했다.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데 대한 반응이었다. 전공의와 의대생 공백으로 인한 의료대란의 우려가 팽배했고 국민의 불편과 불안도 커졌다. 올해 2학기가 돼도 학생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2학기 수업 출석률은 2.8%에 그치고 있다는 통계만 전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과 2년·본과 4년 등 현행 6년의 의대 학사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면 앞으로 신규 의사 배출에 공백

이 생길 것은 자명하다. 매년 의대 졸업생 등 3000여 명이 신규 의사로 나와야 하는데, 올해 본과 4학년 학생 대부분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면서 내년 신규 의사 배출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에 정부가 '의대 5년제' 방안을 들고 나왔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우선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본과 4학년인 한 학생은 "8월부터는 아예 포기하는 분위기였다. 추후 보충으로 채울 수 있는 분량이 아니다"라며 "특히 실습 학년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 배출을 위해 교육과정을 줄인다면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훤히하다.

교육부가 내놓은 '전국 국사립 의대 군 휴학 허가 인원을 보면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37개 의대에서 1059명이 군 휴학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하면서 군의관을 포기하고 현역 입대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학생들이 당장

도 놓쳐버린 교육과정 공백을 매우어는 이미 늦었다는 게 중론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의대 5년제' 방안 발표는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을까. 교육부는 발표 후 비판이 잇따르자 "의무화가 아니라 대학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대학의 재량에 맡겼다는 건 정부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상식적으로 봐도 수의대도 6년을 공부하는데 의대 과정을 5년 공부로 끝낼 수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해외에서는 의대 교육과정이 대부분 6년이고 일부에서는 8년까지 운영되기도 한다. 의대 문제 해결이 아무리 조급한 상황이라도 정부는 해결방안에 신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기응변식 땀집 처방을 내리기 전에 먼저 공론화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금융공기업 부채 더 방치해선 안 된다

금융 공공기관의 부실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님이 드러났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신보)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근 '2024-2028년 중장기 재무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2028년까지 총 3조4995억 원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공공기관을 동원해 벌여 왔던 각종 지원사업의 후폭풍이 몰아닥친 것이다. 두 기관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것은 재무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보의 대우연체액은 2022년 1조3599억 원에서 지난해 2조2759억 원으로 67.4% 늘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위탁보증을 한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캠코의 부채비율은 올해 222.2%로 전년(181.7%)보다 40.4%p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차입을 통해 충당하다 보니 재무지표가 가파르게 악화한 게 주된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보·캠코 28년까지 3조여 원 정부 지원 요청 정부 방침 따라 지원한 대우연체액 급증 원인 공사채 국가보증채무에 포함하고 관리받아야

정부는 오히려 지원사업 범위를 더 넓히고 있다. 최근 새출발기금의 채무 조정 대상 기간을 7개월 확대해 기금 지원 규모를 이전보다 10조 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신규 사업을 벌일 때마다 추후 비용을 충당해 주겠다고 하지만 나라 살림이 빠듯하다 보니 실제 지원금은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공기관의 건전성 지표가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가용 재원을 감안해 사업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불만'이 제기되고 있을 정도다.

주목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금융공기업이 상대적으로 부채가 많다는 사실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공기업의 부채를 추정한 결과,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62.7%를 기록해 비교 가능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개국 가운데 월등히 높았다. 2019년 일반정부 부

채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비중은 48.8%로 8개국 중 가장 낮았다.

이는 대부분 공사채 발행 방식으로 생겨난 빚이라는 특징을 띠고 있다.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사채는 신용도만 높으면 대규모로 발행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기업은 파산할 것 같으면 정부가 미리 나서서 채권의 원리금을 대신 지급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자체 펀더멘털(국민소득고용지표 등 거시경제지표)과 상관없이 거의 항상 최상의 신용도를 인정받고 있다. '태생적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사채는 민간 회사채보다 낮은 금리에 발행되고, 금리 할인 효과는 연간 약 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공기업의 암묵적 지급보증은 우리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 공기업은 재무건전성이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고, 정부도 무리한 사업을 할당하게

돼 이중의 도덕적해이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윤석열정부는 이제라도 모든 공사채를 원칙적으로 국가보증채무에 포함하고, 공식적인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신보와 캠코 등 금융공기업에 대해 은행에 비견되는 정도의 자본 규제를 적용해야만 부실을 막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평상시에는 일반 채권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만, 발행기관의 재무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하면 해당 채권이 그 기관의 자본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 지급 의무가 소멸하는 '채권자 손실분담형'(bail-in-베일인) 채권을 공기업에 도입하는 것도 긍정 검토할 바이다.

아울러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공기업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통해 능력 있는 직원들이 업무효율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한봉희의 100세 건강

인체는 자연 치유력, 즉 체내 면역력이라고 하는 고도로 예민한 자체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다. 면역력은 사람이나 동물의 몸 안에서 병원균이나 독소 등의 항원이 공격할 때 이에 저항하는 능력이다. 면역력은 우리 몸을 세균과 바이러스 각종 암과 종양염증으로부터 지켜 주는 몸의 방아쇠이다. 모든 질병은 면역력 저하로부터 시작된다.

인체는 병원균이나 독소 바이러스 등 항원이 침입하면 엄청난 잠재력을 활성화하여 스스로를 지켜 낸다. 똑같은 암에 걸리더라도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재발한다. 이것은 조직학적으로 암을 일으키는 구성 유전자가 다르고, 인체의 유전자와 면역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질병 발생에 유전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생활환경이다.

암에 걸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활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자 다른 면역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사람들은 각자의 정보와 지식을 총동원

암을 이기는 자연 치유력



하여 건강식품과 식이요법 단백질산수화물 미네랄영양소를 따져 가며 섭취한다. 그럼에도 자연 치유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서양의학은 병이 난 다음 치료하는 의학이다. 반면 한의학은 병이 생기기 전에 치료하는 예방의학이다. 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미 자연 치유력이 파괴되어 인체가 손상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뜻이다. 서양의학에선 이것을 원상 복구시키는 방법으로 자연 치유력을 이용하기보다는 독한 약과 의료장비를 동원하여 치료하려고 한다. 그럴수록 인체는 더욱더 큰 손상을 입는다.

자연 치유력의 회복은 세포가 좋아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태어나서부터

우리 몸은 입으로 공급되는 음식으로 성장한다. 어떤 음식을 공급받느냐에 따라 몸속의 생태계가 달라진다. 즉 몸속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바뀐다.

유전자보다 장내미생물들의 유전자가 몸 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장내미생물은 육식이나 첨가제가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 건강식품보다 과일과 채소류 해조류 같은 자연 상태의 식이를 좋아한다. 장내미생물 생태계의 건강이 자연 치유력이 고암을 비롯한 온갖 질병을 이겨 내는 근본 열쇠다. 피부 기러움이나 대상포진수포 같은 증상은 자연 치유력 저하가 원인이다.

처방된 약을 복용하고 피부에 발라도 잠시일 뿐 속소는 다시 살아나 밤새 몸을 괴롭힌다.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100세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다. 우리가 먹은 매끼의 음식이 곧 약이 되고 독이 되는 것이다. 일산100년의원원장·한의학박사